

양양소식

2023. 10

Vol. 341

CONTENTS

04 기획특집

감성충만 양양

08 함께 가는 길

양양군 평생학습관

12 Story in 양양

남에리의 낮과 밤



우화羽化를 옛보다

김인자

공원, 버드나무 아래
얇전한
담요 한 장

꼬물꼬물
청춘 한 쌍

바깥세상 빠끔히 내다보더니
연신 팔랑거린다

날개가 돋으려나보다



김인자

양양 출생

2007년 <문학시대>로 등단

강원작가회의 회원

전 양양문인협회 회원

2019년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시집 : <우화를 옛보다>



CONTENTS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감성충만 양양
- 8 함께 가는 길_ 양양군 평생학습관
- 11 Story in 양양_ 남해리의 낮과 밤
- 15 양양에서 만나는 가을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_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 18 향토사 이야기_ 사리란 무엇입니까?
-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건강알리미_ 벌 쏘임 예방법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정보
- 28 공익광고_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COVER DESIGN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41호

양양군



- | 발행일 2023년 10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 |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전통과 현대의 공존, 감성충만 양양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스마트 관광도시 양양은 전통과 현대, 트렌드 감성이 공존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랜 전통의 '양양오일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새로운 감성마켓 '뚝방마켓'이 공존하고, 60년대 대장간의 망치 소리와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지는 양양의 감성충만 현장을 둘러봤다.

전통과 트렌드의 만남, 양양오일장

올 여름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양양이 주목받고 있다. 가수 이효리, 김완선, 엄정화, 보아, 화사가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공연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 tvN <댄스가수 유랑단>이 양양을 찾았다. 양양오일장에서 구입한 옷과 소품들로 즉석에서 무대의상을 만들어 버스킹 공연을 열었다. 방송을 통해 양양오일장은 전통의 맛과 멋은 물론,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감성 충만한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4일과 9일로 끝나는 날이면 양양전통시장에 오일장이 열린다. 양양오일장은 영동권에서 제법 규모가 큰 장으로 20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한다. 양양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남대천 둔치가 주차된 차량으로 넘쳐난다. 주차할 곳이 없어 빙빙 돌다가 반갑게 만난 곳,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다. 2층 3단 규모로 총 150대를 주차할 수 있어, 봄비는 장날에 와도 주차 문제가 없다.

남대천 제방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댄스가수 유랑단>이 버스킹을 열었던 다목적 광장이 나온다. 2019년 양양전통시장과 남대천 둔치 사이 공터에 조성된 다목적 광장은 중앙에 야외공연장과 계단형 스탠드가 조성돼 있다. 이곳은 주로 음악회나 공연 등 각종 이벤트가 열린다.

공연장 양옆으로는 잔디와 조경수, 벤치가 있어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바로 옆 양양웰컴센터는 작은 영화관과 카페, 로컬푸드 매장이 입주해 있어 주민들의 여가문화 생활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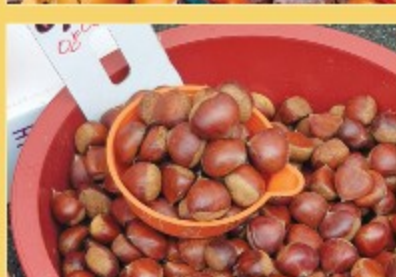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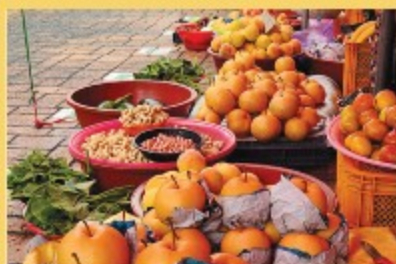




다목적 광장과 대장간

〈댄스가수 유랑단〉의 깜짝 공연은 끝났지만 양양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무대에서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주말 5일 장날과 매월 4번째 토요일에 '폴링 인 양양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연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된다. 전통과 함께 거리 문화예술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다목적 광장 한편엔 1965년에 문을 연 양양대장간이 눈길을 끈다. 양양전통시장의 터줏대감처럼 반세기 넘게 이곳을 지키고 있다. 대장간 안에 들어서면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대로 돌아간 듯하다. 마치 영화 세트장 같다. 60년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대장간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 게 놀랍다. 대장간의 세월만큼 오래된 도구와 가게 풍경이 정겹다.



양양오일장

양양오일장은 계절마다 양양지역의 산과 바다에서 나는 특산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이들로 북적인다. 평소 상설시장으로 운영되는 양양전통시장은 인근 점포까지 합해 150개 정도 운영되는데,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난전 300여 개가 더해져 볼거리가 더욱 많다. 이 가을, 장날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양양송이버섯'이다. 워낙 귀하신 몸이다 보니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밖에 양양의 명물 낙산배와 토실토실한 밤과 사과 등등 풍성한 가을이 오일장에 펼쳐진다. 양양오일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 외에

도 양양만세 시위가 시작된 장소로 양양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양양의 전통과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양양의 구심점이다. 양양오일장에 또 다른 재미가 추가됐다. 〈댄스가수 유랑단〉에 출연한 가수들이 무대의상과 소품을 샀던 가게를 둘러보고 주인장에게 뒷얘기를 듣는 재미도 있다. 당시 구입했던 장갑이며 신발, 모자, 의상 등 역시 양양오일장에 없는 게 없다. 가수 이효리가 입었던 군복이 힙합바지로 변신했는데, 하나 사 입어 볼까 하는 욕심이 생길 정도다.



양양독방마켓

오랜 전통과 역사를 품은 양양오일장이 있다면 양양엔 올해 들어 새로운 신상 마켓이 생겼다. 매달 두 차례, 송이공원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양양독방마켓'이다.

올해 4월부터 양양지역의 셀러들이 삼삼오오 모여 지역 상생과 감성을 파는 마켓으로 출발했다. 독방마켓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일요일은 5시까지) 운영한다. 지역주민들이 키운 농특산물과 다양한 공예품, 직접 제조한 먹거리들을 구입 할 수 있다.

또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 체험 부스도 운영하고 있어 꼭 물건을 사고팔지 않아도 특별한 추억을 즐길 수 있는 감성마켓이다. 특히 독방마켓이 열리는 송이공원은 남대천 독방길 아래 위치한 공원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놀이기구와 넓은 잔디밭이 있어 가족, 친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에필로그〉

손가락만 까딱해도 원하는 물건이 문 앞에 도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양양오일장에 가서 장을 본다는 건, 아주 먼 옛날얘기 같기도 하다. 그러나 양양오일장에 와보면 알게 된다.

그곳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감성충만'이 있다. 서핑의 성지와 스마트 관광도시로 젊어진 양양이 핫플레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양양의 진짜 매력은, 오랜 전통과 감성이 어우러진 도시가 아닐까.

〈글·사진 : 편집부〉



양양군 평생학습관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방법”

현대사회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를 바라보고 있다. 늘어나는 수명만큼이나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지는 평생학습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취미, 창업, 자기계발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건강을 위해 필라테스를 즐기는 삶, 외국 여행을 준비하며 외국어를 배우는 삶, 다양한 소재를 다루며 공방 창업을 준비하는 삶, 유튜브를 꿈꾸며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삶.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양양군 평생학습관에서 만나보자.



양양군 평생학습관

양양군 양양읍 안산길 36

033-670-2777

<https://edu.yangyang.go.kr>

모든 군민에게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기회

양양군평생학습관은 2022년 4월 여성회관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운영을 시작하였다. 1998년 개관해 오랫동안 여성들의 복지와 교육시설로 사용되던 여성회관이 양양군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과 함께 양양군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되면서 모든 군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강좌는 현재 하반기 강좌 3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문 교양 강좌부터 취미, 건강, 자기계발 분야까지 다양하다. 오전에는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오후에는 퇴근한 직장인들이 많다.

교통편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맞춰 월리푸르미아파트 ~ 강현면 보건지소까지 순회하는 방식으로 전용 차량도 운영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의 반응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코어 근력을 키우고 바른 자세를 만드는 소도구 필라테스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관리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필라테스의 경우 정원의 3배에 가까운 인원이 수강 신청하는 등 인기가 높았고, 유튜브 채널 개설에 관심이 있던 주민들은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아이템 구상이 한창이다.

단기간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학습자들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동아리를 연계하는 사후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다. 13개의 학습동아리를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포함시켜 강사료, 봉사활동 시 재료비와 활동비, 동아리 모임장소를 지원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강원도 평생학습동아리 축제 공연 분야에 대금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가 예선을 통과하여 10월 평생학습동아리 축제 참여를 위해 준비 중이다.





배움의 파도를 서핑하는 평생학습도시

본격적으로 평생학습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평생학습기반 구축을 위해 매년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제도인 '평생학습도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1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례 개정과 함께 평생학습을 위한 준비를 해 온 결과, '누구나 배움의 파도를 서핑하는 평생학습의 바다'라는 비전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서퍼들이 바다를 놀이터처럼 공유하듯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양양군 전역이 평생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세부사업으로는 퍼실리테이터, 매니저 양성과정, 우수동아리 공모 지원, 라운지 구축과 함께 귀농·귀촌인 프로그램 공모제 등 지역특화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평생학습관은 주민자치센터의 읍면 평생학습센터로의 전환을 통해 군민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마을 경로당과 연계한 평생학습센터를 발굴 및 운영하면서 세밀하고 촘촘한 학습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문해교육사들은 관내 7개 경로당을 찾아가는 문화배달강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한글 교육은 물론, 스마트폰 이용방법, 키오스크 주문 방법 등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두 번씩 경로당에서 진행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내 재능을 가진 귀농인, 귀촌인을 발굴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었으며,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을 통해 31명의 매니저가 과정을 수료했다. 이들은 10월부터 읍면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갖게 되고, 마을 주민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아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양양군 평생학습관은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맞춤형 주민 강사 육성과 역량 강화, 분야별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등 평생학습 허브기관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글·사진 : 편집부〉



남애리의 낮과 밤을 건너 바다와 내가 연결되는 시간, 남애리의 낮과 밤

세상의 모든 발명품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분리된 두 공간을 이어주는 '다리(橋)'는 이동의 번거로움을 줄여줌으로써 인류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발명품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늘날에는 기능뿐만 아니라 미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다리들도 많아졌다.

현남면 남애리에는 육지와 바다를 잇는 두 개의 특별한 다리가 있다. 보다 안전하게, 보다 가까이서 양양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이 다리들은 남애리의 낮과 밤의 풍경을 빛내는 명소이기도 하다.

육지에서 바다로, 낮에서 밤으로, 즐거운 순간 이동을 경험할 수 있는 남애리의 '다리들'을 소개한다.

자연 암반과 어우러진, 남애리 신상 인도교



“다리가 열어준
길을 따라
색다른 감성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다리만큼 애뜻한 구조물이 또 있을까? 단절된 두 공간을 이어주는 다리는 ‘연결’, ‘화합’, ‘만남’ 등 긍정적인 의미를 담을 때가 더 많다.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돕기 위해 다리를 만든 까치와 까마귀 이야기가 그렇고, 이웃 마을을 가느라 발이 젖도록 개울을 건너야 했던 어머니를 위해 밤새 돌다리를 놓았다는 7형제 이야기도 그렇다.

올해 8월 중순에 남애리 주차장과 작은 방파제를 잇는 인도교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리는 또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지 사뭇 기대되었다. 그동안 남애리 방파제까지는 보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미끄러운 돌을 건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바닷물에 발이 젖는 번거로움도 겪어야 했다고 한다. 통행의 불편함은 둘째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이에 양양군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파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교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길이 57m, 폭 2m에 이르는 남애리 인도교는 콘크리트 기둥과 철골 구조물 위에 나무 데크를 깔아놓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월파로 인한 시설 손상 예방을 위해 교량 접합부를 방파제보다 높게 하고,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통행 제한을 위한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자연 암반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모습은 그것 자체로도 볼거리를 선사하는데, 꼭 바다로 향하는 기차 레일을 연상케 한다. 다리에 올라 방파제까지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았다. 오른쪽으로는 남애리 해수욕장의 풍경이 펼쳐졌고, 왼쪽으로는 남애항 방파제의 빨간 등대가 보였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한층 농밀해진 하늘과 바다의 푸른 빛에 눈이 다시 들었다. 사방이 탁 트여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저 다리 하나를 건넌 것 뿐인데.

하지만, 아직 감탄하기에는 이른다. 밤이 되면 남애리 인도교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난간에 조명을 달아놓은 덕분에 어둠 속에서도 다리의 모습은 선연하게 드러났다. 조명에 반사되는 자연 암반의 자태도 신비롭게 느껴졌다. 여기에 양양군 심볼과 양양 캐릭터 등을 바닥조명으로 구현해 신선한 볼거리를 더했다. 남애리 인도교는 육지와 방파제뿐만 아니라 풍경과 나를 연결해 주는 것 같았다. 다리가 열어준 길을 따라 색다른 감성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구름처럼 가뿐하게 수평선 가까이, 남해3리 바다구름다리



남해1리 인도교보다 앞서 지역의 명물이 된 다리가 있다. 남해1리 마을회관에서 남해항을 지나 북쪽으로 1km쯤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바다구름다리'다. 남해1리의 인도교가 육지와 방파제를 잇고 있다면, 바다구름다리는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사제와 연결되어 있다.

2020년에 남해3리 방사제와 함께 완공된 바다구름다리는 완만한 곡선을 띄는 흰색 아치교 형태로, 멀리서 보면 마치 바다 위에 둥실 떠 있는 구름처럼 보인다. 다리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백사장을 지나가야 하는데 다리 입구까지 데크를 깔아 모래를 밟지 않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다리 초입에 이르러 위로 올라다보면, 오르막길이 하늘로 뻗어나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데, 요즘 소위 말하는 'SNS 인증샷 각'으로 인기를 모을만한 '뷰'였다.

오르막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가 다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다.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면서 발아래 풍경들을 골고루 시야에 담았다. 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물빛, 누군가 비밀스럽게 조각한 듯한 암석, 먼바다로 이어지는 파도까지 다채로운 풍광들을 즐길 수 있었다.

바다구름다리를 다 건너면 방사제 끝에 노란 등대가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2020년 3월 4일에 처음 불을 밝혔다. 남해항남방사제 등대이다. 등대 주변으로 벤치와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 이곳에 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한다.

나도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참 동안

물멍을 즐겼다. 멀리 보이는 남해항스카이워크 전망대까지 시선을 던졌다가 남해3리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 바다구름다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이 근사한 곳이다. 물론 남해1리 인도교처럼 야경을 만끽할 수는 없지만, 멋진 일몰 뷰를 간직한 곳이니 그것으로 아쉬움을 달래도 좋겠다.

두 개의 다리 그리고 남해항



남해1리 인도교와 남해3리 바다구름다리는 '남해항'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다. 하나의 항구를 중심으로 각각 북쪽과 남쪽에 자리하고 있기에 항구 풍경을 사이 좋게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남해항은 마치 화룡점정처럼 두 개의 다리가 갖는 매력을 배가시킨다.

남해항은 양양 8경 중 제7경에 속할 만큼 아름다운 항구로, 강원도 3대 미항으로 손꼽힌다.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을 설레고 기대하게 만드는 아우라를 품은 곳. 양양의 인기 관광지인 남해항을 찾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남해1리 인도교와 남해3리 바다구름다리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해항은 여행객들과 두 개의 다리를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리'는 분리되어있는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새로운 풍경과 의미를 열어준다. 남해에서 만난 두 개의 특별한 다리들 그리고 남해항처럼. 그들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당당히 거듭나는 앞날을 꿈꿔본다.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일원

2030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 지정 변경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다.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양양군은 지난 2020년 7월 2030년을 목표연도로 양양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착수하였고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양양군의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

금회 추진되는 2030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에는 용도지역 변경 255개소 1,095,289㎡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토지이용현황, 기초조사자료에 의한 분류 등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계획수립하였고, 용도지구 결정(변

경)은 당초44개소에서 14개소 폐지하여 30개소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3개소를 포함하여 입안하였다.

특히 남애 일원은 1983년 주거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고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하였으며, 2007년과 2011년 단독주택 3층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층 이하로 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남애리같이 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10개소에 대하여, 이중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진흥지구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 군관리계획 결정 신청 이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으며 금년도 말 최종 승인 고시될 예정이다.

양양에서 만나는 가을



거마천 황화코스모스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350)



남대천 뚝방 (양양군 남문리 362)



남대천 생태관찰로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86-8)



남대천 황화코스모스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99-11)



의

정

소

식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운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일반안전 외 조례안 14건 등 총 23건 부의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운영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양양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권고안,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등 총 2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봉균 의원은 오색삭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진행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 간사 박광수)에서는 1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12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조문 내용 중복 등의 이유로 수정가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 간사 김의성)에서는 제1회 추경 대비 4.28%, 207억 원이 증액된 5,051억 원으로 편성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하였다.

오세만 의장은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에 따른 착공사업비, 여름철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 및 해안쓰레기 처리 등 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추가 경정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친선 체육대회 개최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0여명 참석

양양군의회는 13일 양양국민체육센터에서 속초·인제·양양·고성 4개 시·군 의원과 직원, 초청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제21회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친선 체육대회’는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양양군의회 주관으로 의원·직원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 화합과 발전적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인 속초시의회 김영길의장의 특별공연(색소폰 연주)으로

행사의 문을 활짝 열어 뜨거운 환호를 받았으며, 이어 진행된 피구,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등의 체육경기로 대회의 열기를 더했고, 시군별로 준비한 다채로운 장기자랑을 끝으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양양군의회 오세만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설악권 4개시군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설악권 4개시군 의회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오늘 체육대회가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사리란 무엇입니까?

사리(舍利)는 무엇일까?

사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사리라(sarira)를 음역한 것인데 '사리라(舍利羅)'로 표현하다가 줄여서 '사리'가 되었다.

사리는 '몸'을 의미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화장(火葬)하고 난 뒤에 남겨진 뼈와 재(灰)까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를 전신사리(全身舍利)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오랜 수행을 한 스님에게서 화장한 결과 나오는 구슬인 쉐신 사리(碎身舍利)를 이른다.

사리는 다시 진신사리(眞身舍利)와 법신사리(法身舍利), 승사리(僧舍利)로 나누는데 진신사리는 석가의 몸을 화장한 유해이며, 법신사리는 석가모니가 가르치신 불법(佛法)이 부처의 또 다른 몸이라 하여 불경(佛經)을 말한다. 승사리는 고승의 시신, 또는 그들을 화장하면 나오는 구슬 등을 가리킨다.



〈휴휴암 굴법당 진신사리〉

사리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있었다. 1993년 말 인하대 임형빈 박사가 사리 1과(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 KISTI의 『과학향기』에 실린 것이다.

경기도 평택 모 사찰의 한 고승이 사후 사리가 나오면 이를 유용한 일에 써달라는 유언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증받은 사리 2과 중 1과를 분석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지름 0.5cm 정도의 팔알 크기 사리에서 12종의 원소가 검출됐으며 사리의 경도(硬度)는 1만 5,000파운드(6,804kg)의 압력에서 부서져 강철보다도 단단했다고 한다. (강철은 1만 2,000파운드에서 파괴)

두 번째는 대부분 원소는 뼈와 같았으나 놀랍게도 뼈에서 발견되지 않는 프로트악티늄, 리튬, 티타늄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프로트악티늄(Po)은 방사성원소로 상온에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세 번째는 프로트악티늄과 티타늄은 1,6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는 물질이라 화장 후에도 발견될 수 있지만 186도에서 녹는 리튬은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학적 접근이 신비감만 키웠다고 한다.



〈진전사지 도의선사부도탑〉



〈낙산사 무산대종사 부도탑〉

불가(佛家)에서 사리를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탑(塔)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무덤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승탑(僧塔)도 부도(浮屠) 또는 사리탑(舍利塔)이라 하는데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모신 묘탑(墓塔)이다. 다만 탑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 대신 불경(佛經)을 법신사리(法身舍利)라 하여 탑 속에 봉안하였다.

우리군에도 법신사리를 모신 불탑(佛塔)과 승사리를 모신 불탑이 전해온다.

특히, 진전사 승탑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도로 9세기 중반 도의선사(道義禪師)의 것으로 추정된다. 진전사가 한국 선(禪) 불교의 종찰로 참선(參禪)을 통해서 득도(得道)한 최초의 스님이 도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으로 다가와 친근한 메시지를 던진 사리탑이 있어 소개해 보겠다.

2023년 5월 31일 낙산사 해수관음상 옆에서는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열반(涅槃) 5주기를 맞아 사리탑 제막식이 있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적인 승탑이 아닌 생전의 모습을 한국불교 최초로 탑으로 조성하였다.

사리는 가운데 사각의 밋밋한 돌 속에 안치하였으며 표면에는 스님의 시와 그림을 음각하였다. 그 옆에는 누구든 쉬어갈 수 있게 빈자리를 마련하였다.

바다를 등지고 앉아 대청봉의 낙조를 바라보는 스님께서 '사리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내려놓고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나!'라며 나그네를 위로한다.

아마도 사리는 탑의 주인공이 지극한 수행을 통해 깨달았던 마음을 대중에게 전하는 '수행의 결정체'였을 것이다.



양양군 수산어촌계,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어촌계 공모사업 선정

양양군 수산어촌계,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어촌계 공모사업 선정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 결과, 지난 9월 1일 양양군 수산어촌계가 선정되어 어촌계 운영비 1억원(국비 5천만 원, 지방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 '2023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 사업'은 신규 어촌계원(도시민·귀어인)을 유치하여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촌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계원 유치 및 정착 등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적이 우수한 어촌계를 선정하여 어촌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 등의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양군 사이클선수단, 전국사이클대회서 종합우승 및 최우수감독상 휩쓸어

양양군 사이클선수단, 전국사이클대회서 종합우승 및 최우수감독상 휩쓸어

양양군 사이클 선수단이 제22회 인천광역시장애인 전국사이클대회에 출전해 남자일반부 종합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올렸다.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벨로드롬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점수 114점으로 의정부시청(103점)과 국군체육부대(90점)를 제치고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호식 감독은 종합우승과 함께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양양수산항~울릉현포항
여객선운항을 위한 협약식 개최**

양양 수산항~울릉 현포항 여객선 운항을 위한 협약식 개최

양양군이 9월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수산항·현포항 정기여객선 운항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진하 양양군수와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양양(수산항)~울릉(현포항)정기여객선 운항 허가 및 여항개발계획(변경) 등 공동진행사항에 대한 협력으로, 이는 양양군과 울릉군의 여객선 운항 인허가 협의 시점에 맞추어 진행된 것이다. 군은 추후 여객선 운항이 가시화 되면 △여객선 운항 관련 농수산물·관광콘텐츠 연계 △양양~울릉공항 간 연계 △자매결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생태공원 개원식 및 제3회 양양군 국화전시회

행 사 명 : 녹색생태공원 개원식 및 제3회 양양군 국화전시회

기 간 :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22일(일)

– 개원식 : 10월 13일(금) 15:00

세부일정표

행 사 명	10월										비 고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녹색생태공원 개원식	→										15:00~
국화분재 전시회	←	←	←	←	←	←	←	←	←	←	
농경유물 전시회	←	←	←	←	←	←	←	←	←	←	
파머스 마켓	←	←	←	←				←	←	←	금,토,일
한우 소비촉진 시식회	←	←	←								1일 2회

장 소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내

문의사항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033-670-2701)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50 양양교육도서관
Tel : 033-672-2679 FAX : 033-672-2689
<https://lib.gwe.go.kr/yylib>

어린이



4번 달걀의 비밀

저자 : 하이진 지음

발행처 : 북극곰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아813.8-하68ㅅ / 자료위치 : [양양]아동열람실

여기 작은 닭장에 살고 있는 세 마리 암탉이 있다. 너무 좁아서 서로 부대끼고 힘들지만 이들에게도 기쁜 순간이 있다. 바로 알을 낳는 순간. 그런데! 어느 날 닭들은 자신들의 달걀이 모두 4번 달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왜 닭들이 낳은 달걀은 모두 4번 달걀일까?

'4번 달걀의 비밀'은 누구보다 알 낳기에 진심인 암탉 삼총사가 자신들이 낳은 달걀의 비밀을 밝히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리며 우리 식탁의 가장 흔한 식재료인 달걀의 불편한 진실을 전한다.

청소년



영화보다, 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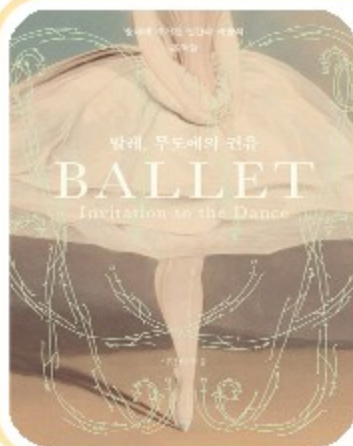
저자 : 송영심 지음 / 그림 : 신병근

발행처 : 풀빛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909-송64ㅇ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고대 문명부터 사회 문화, 전쟁과 개혁, 종교, 인물까지 총 다섯 개의 상영관에서 스무 가지 세계사 이야기를 선보인다. SF영화인 <인터스텔라>나 <타이타닉> 같은 로맨스 영화에서도 역사적 순간들을 찾아내 놀라운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영화보다, 세계사'는 영화를 보기 전이라면 역사적 사실을 아는 만큼 영화가 재미있어지고, 보고 난 후라면 영화 속 장면이 또 다른 측면으로 새롭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세계사 지식을 쌓고자 하는 독자뿐만 아니라 좋은 영화를 만나고 싶은 독자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발레, 무도회의 권유

저자 : 이단비 지음

발행처 : 클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685.5-이22ㅂ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방송작가로 활동하면서 오랜 세월 발레를 직접 배우고, 추고 있는 저자가 발레 무용수의 신체부터 발레 동작, 발레 용어, 발레의 역사, 그리고 주요 작품과 아티스트까지, 발레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몸에 새겨진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생생한 발레이 이야기는 발레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부터 깊이 접하고 즐기는 애호가까지 누구에게나 흥미롭게 다가온다. 발레라는 춤과 예술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준다.

양양
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30일



크리에이터



퍼피구조대 : 더 마이티 무비



화란



마브카 : 숲의 노래



화사한 그녀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벌쏘임 예방법



벌 쏘임 예방 수칙

아이 활동 전 벌 쏘임 관련 안전교육 실시

벌 쏘임 사고 대처를 위한 응급 처치를 숙지 및 비상약을 챙기기

향수, 화장품, 라이스파워 등 지피하기

모기약 스프레이 등을 준비하기

아이 활동 장소에 벌집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

119 출동 대비를 위한 벌집 위치 파악하기

가 볼, 긴 바지를 입고 아무런 보호도 없이 꽃 밭 보기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몸을 낮추고 20m 이상 빠르게 뛰기

* 꽃밭 근처에 벌집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112)하여 제거합니다.

말벌과 꿀벌의 차이

말벌

말벌알로 보호되어 여러 번 피를 수 있음

먹이가 필요하면 **반년 이상** 공격하는 등 매우 위험

특히 **강수량**은 미세한 진동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안전에 더욱 주의**

보통 땅속에 알을 낳고 자라므로, 나무 줄기 밑부분 등이나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등에 알을 낳는다

꿀벌

알고리 모양으로 쏘고 나면 대부분 통증이 빠져 한 번만 쏘를 수 있음

저러공통(노초공통)은 알벌(꿀벌)과 달리 꿀을 채취하기 위해 큰개가 더 작지만 날개가 크며 주위에 있다는 능력이 높음

각각 제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쏘이지 않는 이상 먼저 공격하지 않음

도시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벌이 존재하므로 항상 주의 필요

벌 쏘임 응급처치 방법

신용카드 등으로 환부의 벌침 제거

손 또는 핀셋을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하는 것은 발진을 퍼서 벌 독이 더욱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

알음주머니 등 차가운 것으로 붓지 않게 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지 경과 관찰

벌 쏘임 시 나타나는 증상

통증, 피부 가려움, 부기

식은땀,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 곤란, 의식저하 등

사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 과민반응) 발생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

아나필락시스 증상이란?

피부

두드러기, 가려움증, 홍조, 입술·혀·목젖의 부종

심장

안정부정맥, 심신, 의식저하

호흡기

코막힘, 콧물, 재채기, 기침, 심 목소리,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쌕쌕소리

소화기: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심혈관: 저혈압, 심장마비, 빠른 맥박

일상생활에서 벌 쏘임 예방으로 즐겁고 건강한 삶을 보내세요.

양양소식지 일자리정보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주)우리전기	1명	내선 전기공(경력자)	08:00~17:00(주6일)	월300만원이상(협의)
인향재가 노인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시간협의(주5일)	시급12,700원
한빛재가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근무지 : 현남면)	09:00~12:00(주6일)	시급12,500원
양양재활재가 노인복지센터	1명	요양보호사	08:40~17:40(주5일)	월210만원
모정의집	1명	요양보호사	교대근무	월210만원~240만원
더조은요양원	1명	간호사	09:00~18:00(주5일)	월230만원
	1명	요양보호사	교대근무	월201만원 이상
강릉최가두부	2명	두부생산직	08:00~17:00(주5일)	월230만원~240만원
(주)이엘디자인	1명	현장관리사원	09:00~18:00(주5일)	월210만원
장어촌	1명	상점판매원	09:30~17:30(주5일)	월230만원
함's 베이커리	1명	제빵사	07:30~16:30(주5일)	월250만원~300만원
농업회사법인 (주)청종	2명	렌선청소 및 꽃밭관리	08:30~17:00 토 : 08:30~11:00	월230만원~300만원
(주)재성정보통신	2명	통신장비설치, 수리원	09:00~18:00(주5일)	연2,640만원 이상(협의)
	1명	총무 및 일반사무원	09:00~18:00(주5일)	연2,600만원 이상(협의)
매홍엘엔에프	1명	설비 유지관리원	09:00~18:00(주5일)	월230만원 이상
	1명	자재구매사무원	09:00~18:00(주5일)	월201만원 이상
	5명	식품생산, 포장원	09:00~18:00(주5일)	월201만원 이상
행복관리주식회사 (오션스테이양양)	1명	시설기사 (소방안전관리자)	격일근무	월302만원
주식회사 삼일팩	3명	스티로폼 박스포장	08:00~18:00(주5일)	시급 9,620원
농업회사법인 (주)설악산그린푸드	2명	제조단순종사원	09:00~18:00(주5일)	월201만원 이상
(주)소노인터내셔널 양양지점 (솔비치)	1명	조리사	시간협의	연2,900만원 이상(협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어업인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금액 : 농가당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원
(보조금 60%, 자부담 40%)
- 지원 시설 : 태양광 목책기, 철망울타리 등
- 신청·문의 : 각 읍·면사무소 또는 양양군청 환경과 방문접수



태양광 목책기



철망 울타리

자기혈관 숫자알기

자기혈관 숫자알기

혈관에는 우리 심장을 달리는 혈액이 흐르고, 혈관질환의 시작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1 심뇌혈관질환이란 무엇일까?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선형질환을 총칭함.

10대 사망원인 순위 및 사망률



(2021 사망원인통계청 발표)

2 나도 이미 고혈압 환자?

만 30세이상 유병률 33.2%, 인지율 72.5%, 치료율 68.3%, 조절률(유병자비율) 51.5%

국민 10명 중 3명은 고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고혈압 환자라는 것을 모름

고혈압 환자 3명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음

고혈압 환자 2명 중 1명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음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3 나도 이미 당뇨병 환자?

만 30세이상 유병률 16.3%, 인지율 67.2%, 치료율 63.0%, 조절률(유병자비율) 24.4%

국민 10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름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음

당뇨병 환자 4명 중 3명은 혈당에 잘 조절되지 않고 있음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4 나도 이미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만 30세이상 유병률 29.8%, 인지율 65.1%, 치료율 57.7%, 조절률(유병자비율) 50.4%

국민 10명 중 3명은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라는 것을 모름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6명 중 2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음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2명 중 1명은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지 않고 있음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5 3040세대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인지율

만 30세 이상 전세대로는 인지율이 60~70% 수준이나 30대와 40대 인지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2021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건강한 혈관을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 하요!

정상 혈압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

정상 혈당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정상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술을 기호에 따라 적당히 마십니다.

평생에 걸쳐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테니스, 골프, 요가 등 운동을 하십시오.

약사의 처방대로 30분 이상 복용하고,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합니다.

자주 물을 마시고, 적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테니스, 골프, 요가 등 운동을 하십시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합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양양군
YANG YANG-GUN

무료 예방접종

대상	장소	기간	비고
65세 이상	관내 의료기관	23. 10. 11.(수) ~ 24. 4. 30.(화)	75세 이상 1948. 12. 31 이전 출생자
		23. 10. 16.(월) ~ 24. 4. 30.(화)	70 ~ 74세 1949. 1. 1 ~ 1953. 12. 31 출생자
		23. 10. 19.(목) ~ 24. 4. 30.(화)	65 ~ 69세 1954. 1. 1 ~ 1958. 12. 31 출생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 10. 16.(월) ~ 24. 4. 30.(화)	65세 이상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 8세 (생애 첫접종자 2회)	중앙외과의원, 성모의원	23. 9. 20.(수) ~ 24. 4. 30.(화)	2010. 1. 1 ~ 2023. 8. 31 출생자 * 관내 의료기관은 36개월 이상 어린이 접종
	보건소		
생후 6개월 ~ 13세 (기접종자 1회)	중앙외과의원, 성모의원	23. 10. 5.(목) ~ 24. 4. 30.(화)	2010.1.1~2023.8.31. 출생자 * 관내 의료기관은 36개월 이상 어린이 접종
	보건소		
임신부	보건소	23. 10. 5.(목) ~ 24. 4. 30.(화)	산모수첩 등 증명서 지참
사회적 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 10. 23.(월) ~ 백신 소진 시	증명서 지참

※ 모든 접종은 백신 소진 시 마감됩니다.

유료 예방접종

대상	장소	기간	비고
14세 ~ 64세 (2009년생 ~ 1959년생)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3. 10. 30.(월) ~ 11. 3.(금)	신분증 지참, 접종비(10,700원)

보건소 유료접종 : 주민등록상 양양군 거주자만 가능

1일 200명 선착순 접종 / 5일간

☎ 033-670-2887 / 2540 / 2940

예방접종 관내 의료기관 현황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상명내과의원	양양읍 양양로 66	672-8712
성모의원	양양읍 양양로 62	673-2800
양양정형외과의원	양양읍 양양로 9-1	672-6723
연세의원	양양읍 양양로 38	672-0092
중앙외과	양양읍 양양로 48	672-0911